

# 연상호 한번 더...구교환 '괴이' 부진의 늪 티빙 살릴까

## 구교환 고고학자 '정기훈'·신현빈 천재 문양 해독가 '이수진' '이야기 전체를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장르적 요소 다채로웠다'

“괴이한 멜로다.” 연상호 감독이 '괴이'를 기획한 배경을 밝혔다. 연 감독은 22일 티빙 드라마 괴이의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에는 멜로물을 쓰고 싶었다”며 “더 이상 끔찍한 게 나오는 것을 쓰고 싶지 않아서 ‘부부애가 나오는 멜로를 써보자’고 생각했다. 극복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설정에 오컬트적인 요소를 넣다 보니 전에 했던 것과 큰 차이 없는 결과물이 나왔다. 괴이한 멜로”라고 설명했다.

“귀불 눈을 보면 자신의 ‘마음 속 어두운 면을 본다’고 설정했다. 모두가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돌아보자’고 마음 먹었다. 인물들은 여러 종류의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서로 보듬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괴이는 비밀상성의 대표격이다. 일상에서는 어둠을 감추고 사는데, 괴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공포 감췄던 뭔가가 밖으로 드러난다. 괴이는 귀불에 현혹된 사람이 쓴 글씨 같았다.” 괴이는 저주받은 불상이 나타난 마을에서 마음 속 지옥을 보게 된 사람들과 괴이한 사건을 쫓는 이야기다. 구교환은 고고학자 '정기훈', 신현빈은 천재 문양 해독가 '이수진'으로 분한다.

미스터리한 귀불이 깨어나 재앙에 휩쓸린 사람들의 혼돈과 공포, 기이한 저주 실체를 추적하는 과정이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021) 연상호 감독과 '중의 집: 공동경제구역'(2022) 류용재 작가가 집필한다.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 장건재 감독이 연출한다.

구교환은 “침대에 누워 연 감독님을 그리워하던 중에 거짓말처럼 문자가 왔다. 연 감독님이 극본을 쓰고 장 감독님이 연출을 했는데, 장 감독님 만의 무드가 있다. 사적으로도 작품에서도 많이 궁금해 평소 친해지고 싶었던 감독님이다. 캐스트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도 꺼달라’고 하고 싶었다. 기분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합류했다”고 귀띔했다.

신현빈은 “이 조합 재밌겠다” 싶었다”며 “감독님 전작을 재미있고 봤고, 감성적이고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재난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 감독님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다. 이야기가 가진 힘이 있어서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수진은 기훈과 결혼해 연구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며 “극 전반의 모습은 ‘진짜 수진이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어려웠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다. 수진이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괴이는 부진의 늪에 빠진 티빙 드라마를 구할 수 있을까. 전작인 '돼지의 왕'은 연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티빙은 지난해 '술꾼 도시 여자들' 흥행 후 올해 '내과 박원장'부터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돼지의 왕'까지 3연속 흥행에 실패했다.

장 감독은 “괴이 극본을 처음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왔을까?’ 생각했다. 찬찬히 살펴보니 가족드라마, 멜로라던 등이 굉장히 중요했다. 무엇보다 이야기 전체를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장르적 요소가 다채로웠다. 이전에 연 감독이 작업한 작업물들과 다른 걸을 느껴서 한 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연 감독이 만든 세계에 ‘흠뻑 젖어 돌아보자’ 싶었다”고 했다.

29일 공개.



## 에이티즈, '유럽 아레나투어' 스타트



그룹 '에이티즈(ATEEZ)'가 2년 만에 유럽 팬들을 직접 만난다.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는 23~2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2022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비기닝 오브 더 엔드(THE FELLOWSHIP : BEGINNING OF THE END)'의 유럽 투어 스타트를 끊는다. 이후 같은달 30일~5월1일 영국 런던, 4월 프

### 5개 도시 8회 공연

랑스 파리, 8~9일 독일 베를린, 12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총 5개 도시의 아레나 공연장에서 8회 공연을 진행한다.

에이티즈는 지난 1월 서울 올림픽홀부터 미국 시카고, 애틀랜타, 뉴어크, 댈러스, 로스앤젤레스까지 총 8만여 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오랜만의 만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에이티즈는 데뷔 초창기부터 해외를 중심으로 인기를 누렸다. 2019년 4월 '에이티즈 - 더 익스페디션 투어 (ATEEZ - The Expedition Tour)'로 데뷔 4개월 만에 북미 5개 도시 및 유럽 10개 도시를 전석매진시켰다.

이번 유럽 투어에서는 깜짝 게스트가 등장, 세트리스트를 풍성하게 채운다고 KQ는 예고했다.

## 尹 유퀴즈 출연 논란 계속...“한국 정치 양극화가 배경”



윤석열, 18분간 유퀴즈 출연...“정치 예능화 경계해야” 출연은 친근함을 더해 좋다”는 환영의 입장이 나오는 반면 “방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는 비판적 입장도 거센 상황이다.

공정적이라고 평가한 30대 남성 전모씨는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한다. 정부 출범 전에 국민과 가깝게 소통하려는 노력 중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족이 유퀴즈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이모(24)씨는 “모래 속에 진주를 찾는 유퀴즈의 섭외력을 믿고 있었는데 윤 당선인 출연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섭외였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전모(28)씨도 “원래 유퀴즈는 길거리에서 팽팡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특별한 얘기를 듣는 프로그램인데 윤 당선인을 초대하니 어색한 그림이 됐다”고 말했다. 최모(26)씨 역시 “출연진들이 어쩔 줄 모르는 느낌이 들었다”며 “아예 친근하게 다 내려놓고 방송할 것도 아니면서 정치인이 왜 예능에 출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이 문제인 대통령의 출연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1일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4월과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구두수선사 등의 출연을 유퀴즈 측에 문의했으나 거절당했

### 윤석열, 18분간 유퀴즈 출연...“정치 예능화 경계해야”

다”고 밝혔다.

CIJNM 측은 “내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탁 비서관은 “당시 통화와 문자 기록이 있다”며 “거짓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저변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의 결과”라면서 “윤 당선인은 아직 특정 당파를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선 이후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김옥태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방송사의 공방을 고려할 때, 균형성과 공정성의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과정 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양극화된 국민들 사이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의 예능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용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은 외모, 성격 등 인간미에 집중하게 만들어 정치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며 “정치인의 인간미를 나타내는 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치적 성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가수 일라이, 아들과 2년만에 재회



그룹 '유키스' 출신 가수 일라이가 2년만에 아들과 재회한 뒤 다 함께 같이 살자는 아들의 부탁에 눈물을 보였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지연수는 전 남편 일라이에게 "(아들)민수 집에 오면 내가 얘기할 테니, 민수 만나"라고 했고, 일라이는 "오늘?"이라며 깜짝 놀랐다. 지

### “같이 살아요” 부탁에 오열

연수가 민수를 하원 시키는 동안, 일라이는 민수를 기다리며 긴장되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육과 지연수의 집을 찾은 일라이는 민수를 보자마자 “아빠야”라며 민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2년 만에 재회한 아빠를 보며 “오랜만에 저 만나서 좋아요?”라고 물었고, 일라이는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렸어”라며 벅찬 심경을 전했다. 민수는 “난 그동안 엄마랑 나를 미워하면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라는 서운함을 토로했다.

일라이는 “아니야, 아빠 항상 민수 생각하고 있었어”라며 지그시 바라봤다.

민수는 사위를 시켜주는 일라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애교를 부렸다. 사위를 마친 뒤에는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발”이라며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모으면서 간절한 바람을 내비쳤다. 일라이와 지연수는 “그러지마. 민수가 잘못된 것 아니다. 다리 똑바로 앉아”라며 자세를 바꿨던 뒤 “민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라고 다독이다가 끝내 눈물을 글썽렸다.

이 모습을 본 MC 김새롬과 유재홍은 “어떡해”라며 눈물을 흘렸다. MC 김원희도 울먹거리며 “민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려고 하는 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 방탄소년단 '페이크 러브'도 넘겼다...6번째 11억뷰 무비



### '빌보드 200' 1위로 진입하는 등 15주 연속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페이크 러브(FAKE LOVE)'뮤직비디오가 11억뷰를 돌파했다.

23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18일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규 3집 '러브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의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3시44분께 11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산 6번째 11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페이크 러브'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0위로 진입해 6주 연속 차트인을, '러브유어셀프 전 티어'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하는 등 15주 연속 차트인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이 앨범으로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발표 첫 주에 '빌보드 200' 1위와 '핫 100' 톱10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거짓된 사랑을 깨달은 후 마주한, 어두운 이별의 감성을 표현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세트와 오가며 펼쳐지는 방탄소년단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가 어우러졌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11억뷰를 넘긴 '페이크 러브'와 15억뷰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를 포함해 총 36편의 역 단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